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응급 처치 요령(5)

1. 화상 부위의 응급처치

화상은 크게 1도·2도·3도 화상으로 분류된다. 1도 화상은 통증이 심하고 피부색이 벌겋게 변하는 반면에, 2·3도 화상은 수포(물집)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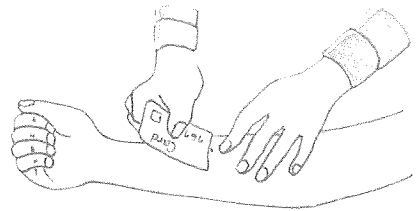
화상이 발생하면 손바닥 크기 이내의 국소적인 1도 화상을 제외하고는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비록 1도 화상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상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옮기기 전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손바닥 크기 이내의 국소적인 1도 화상인 경우에 국한하여 차가운 수돗물(흐르는 물)로 화상부위를 적시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쏘인 부위의 통증 이외에 다른 증상(호흡곤란, 가슴이 조임, 의식이 흐려짐, 흉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특히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환자들에서는 15분 이내에 호흡곤란, 부정맥, 혈압저하, 심장정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벌집을 제거함과 동시에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에 쏘인 경우에, 증상에 관계없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

- ① 과거에 약을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
- ② 주기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는 사람 :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피부염(아토피)·천식 등
- ③ 벌에 쏘인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그림 1>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벌침의 제거

2.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

1) 벌에 쏘인 경우의 응급처치

야외에서 곤충(벌 등)에 쏘였을 때에는 벌침의 침낭에 있는 물질이 면역반응(아나필락시스)을 유발하여 통증·호흡곤란·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으로 물린 부위를 긁어서 침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림1).

2)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

뱀에 물린 경우에는 움직이지 말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위치(그림2-1)시키고, 물린 부위

제대로 알자 1

- 화상 부위에 된장, 간장, 바셀린 등을 바르면 빨리 나을 수 있는가?
- 된장, 간장, 바셀린 등에는 각종 오염 물질 및 세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부가 손상된 화상 부위에 이러한 물질을 바르면 오히려 화상 부위가 감염되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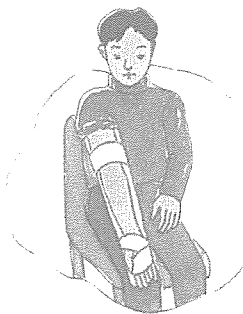
- 화상 부위의 물집(수포)은 빨리 터트리는데 좋은가?
- 물집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물집 속에는 많은 내용물이 들어 있는데, 물집을 터트리게 되면 외부의 세균들이 내부로 침입하여 내용물과 작용,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물집에 관한 처치는 의사에게 맡겨야 하며, 일반인들은 화상에 의한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대로 알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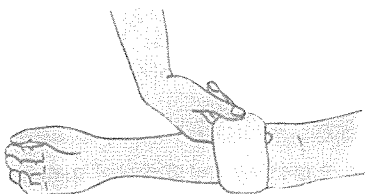
- 벌에 쏘인 부위에 된장이나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것이 정말로 가장 좋은가?
 - 된장이나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일시적으로 통증은 감소하지만, 벌침에서는 유해한 물질이 계속 분비되므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첫 번째 응급처치법이다.
- 뱀에 물린 부위를 누구라도 먼저 칼로 절개하는 것이 안전한가?
 - 물린 부위를 살며시 기술적으로 절개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잘못 절개하게 되면 동맥을 손상시켜서 출혈에 의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독되지 않은 칼로 절개하는 경우에는 파상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이 절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면 과연 독이 제거되는가?
 - 뱀에 물린지 15분 이내에 만약 입으로 빨게 되면 독의 30% 정도가 제거되지만,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치주염, 발치 후 등)에는 오히려 독이 구조하는 사람에게 퍼져서 위험할 수 있다.
-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대부분 죽게 되는가?
 - 그렇지 않다. 국내의 독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혈액 독이므로 응급 처치만 하면 99%이상 생존한다. 혈액 독은 혈액 내의 성분(적혈구, 혈소판 등)을 파괴하여 머칠에 걸쳐서 서서히 출혈이나 신부전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병원에서의 간단한 처치만으로도 즉시 회복 될 수 있다.

를 부목으로 고정시킨 다음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물린 부위의 위쪽을 넓은 천(폭 3~5cm)으로 살며시 묶고, 묶은 천과 신체는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그림2-2).



〈그림 2-1〉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




〈그림 2-2〉 뱀에 물렸을 때의 응급처치2

3. 약물중독 시 응급처치

누군가 약물을 복용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다만 병원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가 토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

가정에서 재빠르게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는, 환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구토를 유발시키거나 소량의 소금물을 먹이는 것이다. 다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응급처치도 일반인이 시행해서는 안된다.

약물을 복용한 후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의식이 점차 흐려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물중독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

- ① 약물의 이름과 성분이 적힌 봉지를 찾는다.
- ② 약물을 복용한 시간과 양을 미리 알도록 한다.
- ③ 약물복용 후 환자가 토한 횟수와 양을 미리 알도록 한다.
- ④ 약물을 먹게 된 경위를 정확히 묻는다.

〈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 이렇게 하자' 에서 발췌〉